

불교서적 출판·판매 “잘 나갑니다”

2년전보다 3배 증가...올 120종 예상
공급자·수요자 동시만족 ‘효과 톡톡’

불교 출판계가 살아나고 있다. 본지가 2004년과 올해 불교계 출판사들의 불교서적 출판현황과 올해 판매추이를 분석한 결과 책 발간이 2년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의 경우 교계 출판사의 책 발간은 총 30~40여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교계 출판사의 책 발간이 늘어나면서 100~120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사 불광출판부 운수사 조계종출판사 여시아문 정우서적등 교계 6~7곳의 주요출판사의 경우 매달 1~3종씩 책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불서 발간이 많아진 것은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2004년의 경우 교계 출판사는 초판을 1000부 이상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나마 초판도 창고에 쌓이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올해 상황은 2년전과 확연하게 다르다. 불교서적의 판매가 꾸준하다. 이런 영향으로 주요 교계 출판사들이 발간한 서적들은 대부분 3쇄를 넘기고 있다. 특히 조계종출판사의 <가야산 호랑이>(5월 11일, 9800원)가 3쇄 9000부, 불광출판부의 <오대산노 스님과 인과이야기>(1월 11일, 1만

원) 3쇄 6000부, 초기경전을 번역한 초기불전연구원의 <디가나까야 1·2·3>(1월 11일, 9만 원)도 4500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 성법 스님이 쓴 민중사의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이 2쇄 5000부, 대원 스님이 엮은 여시아문의 <반야심경>(3월 11일, 1만5000원) 3쇄 4000부를 돌파하는 등 교리해설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불교 학습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4년 1년동안 200권도 채 팔리지 않았던 불교 학습서도 판매가 꾸준하다.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이 시공사에서 펴낸 <인도불교사1·2>(1월 11일, 6만5000원)는 벌써 3쇄(1500부)나 찍었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이처럼 활성화의 시동을 걸 수 있게된 요인은 무엇일까? 출판 관계자들은 대부분 2004년 당시 최악의 출판 불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시 출판사들은 ‘양서 만들기’는 포기하고 법보서 책 발간이나 편집대행 등으로 ‘살아남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교계 출판사들은 자기책을 찾았



2004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불서가 출간, 보급되고 있어 불교출판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반디맨루니스 종로점에서 한 불자가 불서를 구하기 위해 책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고영배기자

다. 불교출판의 현실을 짚어본 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불교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불서읽기운동과 교구본사 도서관 설치, 도서공급장구 일원화 등 불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대

불서읽기운동·양서만들기 노력 결과
다양한 기획·적극적인 마케팅 ‘과제’

안을 제시했다. 또 불교출판문화 협회도 재발족시켜 2005년 본격적인 불교출판 활성화 운동을 전개했다. 불교출판협회는 지난해 전국 62개 서점에서 불서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연말에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을 갖는 등 좋은 책을 만든 출판인 격려에도 공을 들였다. 또 민중사의 경우, 새로운 작가와 원고를 발굴하기 위하여 출판원고를 공모하고, 작가초청 강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자 독자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다. 불자들이 출판 불황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돼왔던 ‘책 안 읽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 ‘종이거울 바로보기 운동’ 등의 모임을 자발적으로 발족했다. 또 때맞춰 일반 학자들과 재가자들 사이에 불교교리공부와 수행열풍이 분 것도 불서읽기 활성화에 일조했다. 다른 요인으로는 그동안 ‘행행보중수표’로 통하는 유명 스님들의 책과 번역서가 모두 일반 출판사의 차지였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요즘 명망있는 스님과 재가자들은 불교계 출판사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광출판부 사기순 부장은 “일반 출판사가 겉모양을 좋게 하고 광고에 더 신경쓰는 장점이 있겠지만 불교전문용어의 경우 오자 탈자가 심하고 번역도 교리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요즘은 일반출판 선호현상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사 부장은 “일반출판사는 책의 판매도 초판에서 반응이 없을 경우 곧바로 매장에서 정리하는 등 교계 출판사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보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교출판계에 목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불서 출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법공망 위주의 단일한 출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교계 출판사들 스스로 독자의 요구와 취향을 제대로 파악한 후 필자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획을 시도해야 한다. 모처럼 활황으로 돌아선 불교출판계가 문서포교의 새로운 국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년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시방세계 9면
중국국가장애인예술단

도반의 향기 17면
남원 운교리 진상호 이장

인터넷 불교정보 오류 4면
가을, 숲길 아름다운 절 28면

‘کم’으로 불교공부한다 조계종 사이버불교대학 오픈

신도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조계종 사이버불교대학이 오픈했다. <불교인문>을 중심으로 한 신도기초교육을 웹상으로 구축한 사이버불교대학 도메인은 www.edubuddha.net, www.edubuddha.co.kr, www.edubuddha.com 등 총 3개. 한 강좌 당 30분씩 총 24강으로 구성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신도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 종단 신도등록이 가능하다. 단 교육과정 중 중간에서 인정하는 수련회를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불교문화·산업 한자리서 만난다

‘2007 한국불교박람회’ 내년 3월 열려...참가신청 접수

현대불교·제이컨벤션 공동주최
2007한국불교박람회가 대회를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07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인 ‘2007한국불교박람회’는 내년 3월 22~2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무국은 불교산업체들의 참가를 독려하며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주)제이컨벤션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찰건축 및 유지 보수, 불교용품, 종단 및 단체, 전통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을 분야별로 전시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행사기간 내 불교문화와 산업에 대한 세미나도 열린다. 지난해 불교적 요소가 확연히 드러나는 문화행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불교문화행사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전시 1관과 3관은 산업부스로, 2관은 체험부스로 운영한다. 지난해 산업부스 사이에서 진행된 문화행사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업체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산업부스와 체험부스를 분리시켰

다. 체험부스는 서각 종이공예 등 무료체험시설들로 꾸밀 방침이다. 참가업체 소개를 담은 디렉토리북도 제작한다. 올해보다 부스도 늘었다. 300개였던 부스를 2007박람회에서는 450개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박람회는 불교계 사업체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했다. 그동안 불교사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에 치중해 왔던 것. 품질보다 영입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공식적인 마케팅 시장이 구성되지 않아 알음알이 판매가 중점이었다. 장희 사무국장은 “한국불교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불교사업체가 고립적으로 앉아있던 품질 개발보다 영업력으로 승부했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열렸던 한국불교박람회는 연인원 5만여명의 참가로 성공을 이뤘다. 사무국은 당시 참가업체의 70% 가량이 다시 참가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7한국불교박람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bexpo.org)와 전화로 받는다. (02)706-3493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창 **봉선사 강설대법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 봉선사 설법전 | 주최 | 봉선사·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031) 527-1951~3

2006.9.16~11.25

經典

수행을 통한 깨달음

지란 스님 금강경

의봉 스님 목조단경

혜남 스님 화엄경

음각 스님 아함경

지안 스님 일백경

각성 스님 해심밀경

백운 스님 법화경

유봉 스님 정토심부경

통광 스님 원각경

원흥 스님 능엄경

봉선사 강설대법회
11월 25일 보살계수제법회
031) 527-1951~3

법회 동영상 중계는 bongsunsa.net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지는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

불교방송 사장에 홍승기 교수

9월 11일 취임식...임기는 2008년 7월까지

제7대 불교방송 신입사장에 홍승기 동국대 교수(52·사진)가 뽑혔다.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9월 8일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제 59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신입사장에 홍승기 교수를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입 홍승기 사장의 임기는 이성인 전 사장의 잔여기간인 2008년 7월 5일까지. 홍승기 동국대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덴버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부터 동국대 경



영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임중이다. 홍 신입사장은 “불교방송을 관리한 다기 보다는 제 2차사를 한 이다. 목표는 불교방송 발전의 토대와 기초를 쌓는 사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취임식은 9월 11일 오전 9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 김지연 기자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요. 귀중한 신행수기 공모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타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earl@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문의 금(최고 10만) 열쇠를 드립니다.